

2026 봄 워크숍 <해방의 온도> 품평회

*품평회는 과거를 탓하는 자리가 아닌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원색적인 비난은 지양하며, 개선 방향에 관해 얘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품평회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개인 간에 가졌던 감정은 이후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품평회는 칭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 좋았던 부분에 관해 얘기한다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 김연우

역할: 조명오퍼

1.<해방의 온도>를 함께 하면서 느낀 점

저의 첫 연극 활동이 <해방의 온도> 였다는 점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연극에 큰 관심이 없었고, 배우들의 연기만이 작품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획, 연출, 음향,무대,조명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품을 완성하는 많은 사람들의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극을 더 넓게 바라보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

2.피드백(워크숍 공연을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점)

연출 김혜림

모든 인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신 점은 좋았습니다. 다만 배우 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스텝은 조금 붐 뜨는 경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배우 연습과 스텝 업무를 나누어 진행된다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 홍예진 서준혁 최연진

서준혁 - 없음

홍예진 - 대사의 전달력이 아쉬웠던 것 같다. 그리고 실제 공연 때 노트 찢는 장면에서 잘 찢어지지 않아 장면이 다소 길게 느껴졌습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흐름이 잠시 끊기는 느낌을 받았기에 다음에는 비슷한 상황에 대비한 대처를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연진 - 연습 중 흐름이 자주 끊기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즐겁게 연습하는 분위기는 좋지만, 반복적으로 흐름이 끊기면 배우들이 감정을 다시 잡아야 하고 연출과 스텝들의 피로도도 커질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연습이었던 만큼 훈련 중 집중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스텝 김윤희 김은채 김연우

김윤희 - 가벽의 길이를 간과한 것, 그리고 거의 공연 직전까지 소품을 제작한 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은채 - 공연 전 음향과 조명 타이밍을 맞출 기간이 길었는데 오퍼 둘 다 정말 공연 마지막까지 타이밍을 못 맞춘 것이 아쉬웠습니다

김연우 -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순간에도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못했고, 블로킹 훈련에서도 집중력이 부족해 공연 마지막까지 동선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셋업 날에는 시간에 쫓기고 컨디션 저하라는 이유로 작업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연 직전 테크 과정에서 연출님의 의도보다 제 판단을 우선하며 테크를 이끌어가려 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첫 공연에서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미리 생각해두지 못했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사와 조명의 타이밍이 다소 어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공연이 끝난 후 타이밍에 대한 배우의 피드백이 있었음에도 마지막 공연까지 많이 어색했습니다

3.~에게 하고 싶은 말

연출 김혜림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연극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저에게 연극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실수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끝까지 믿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배우 홍예진 서준혁 최연진

서준혁 - 알바랑 병행하며 연습도 착실하게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연기력은 솔직히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안정적이었고, 연습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리고 공연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성장하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노래하고 춤추는 역할이니 컨디션 관리를 위해 밥은 제대로 먹고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홍예진 - 매일 일찍 오셔서 연습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연습을 할수록 감정도 깊어지는 게 보여서 무대 위에서는 정말 혜연이라는 인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바라보시는 태도와 작품을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보여서 같이 연극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최연진 - 연기가 처음이라는 게 안 믿길 정도로 성량도 좋고, 감정 표현과 조절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배우뿐만 아닌 스태프들과 소품, 조명, 음향에 대한 소통을 하며 작품에 참여하는 모습이 좋았으며 공연을 함께 만들어가려는 태도가 좋았습니다 !!

스태프 김윤희 김은채 김연우

김윤희 - 무대는 정말 단칸방 그 자체라고 느껴질 정도로 현실감이 있었습니다! 소품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었고, 공간 구성도 섬세했으며. 선배가 이번 공연에서 의상·소품·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며 무대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만들어가야 하는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한 본인의 파트가 아님에도 조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실제 셋업 날에도 조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동이었고 감사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하며 선배의 작업 태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까지 많은 부분을 배우고, 본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은채 - 음향을 대하는 태도와 끊임없이 배우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오퍼분들도 이야기하실 정도로 공연에 임하는 자세가 성실하고 진지하게 느껴졌고 음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으며 사용된 음향 하나하나에 많은 고민이 담겨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그 결과가 무대 위에서도 효과적으로 표현된 것 같아 마음이 좋았습니다!!

김연우 - 위의 피드백을 반영해 다음에는 더 좋은 스태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